

민주 비대위 구성... 쇄신·화합 이룰까

김동철·문병호·설훈·박홍근 등 7명 인선

문희상 “리모델링 아닌 재건축 수준 혁신”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대위원 인선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대선 패배 평가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비대위가 당내 쇄신과 화합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잘 이끌어 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 3선의 설훈, 김동철 의원과 재선의 문병호, 박홍근 의원, 조선의 배재정 의원 등 원내 인사 5명과 이응득 전 최고위원,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등 원내 인사 2명 등 7명을 인선했다.

문 위원장은 비대위 인선 이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으로 당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뒤, “대선 패배의 원인과 전략상 실수를 철저히 분석,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100년 앞을 내다 볼 수권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깊은 성찰과 치열한 혁신으로 민주주의의 새 길을 개척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

했다. 민주당은 문 비대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와 이들 7명 등 당내 인사 9명에 더해 학계, 시민사회 등 2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추가로 비대위원에 선임할 계획이나 영입 대상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산하 기구로 대선평가,

정치혁신, 전대준비 관련 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대선평가위원장의 경우 객관성 담보 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임명한다는 방침이지만 회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평가위 구성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대선 평가 작업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물 마련과 함께 비대위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선 평가 결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선 평가는 4·11 총선

공천 과정과 선거 전략, 민주당 대선 경선, ‘문재인-안철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 대선 전략 및 캠페인 등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직·인사·재정 등 선대위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은 민감한 부분으로 차치 평가 과정에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선 평가를 야에 외부의 컨설팅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선 패배 후유증을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 7인을 임명한 후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문병호·설훈 의원, 문희상 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 이응득 전 최고위원, 배재정 의원,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연합뉴스

민주, 대선 패배 사죄 ‘회초리 민생투어’

15일 5·18묘지 참배로 시작... 지역민심 치유 주목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 27일 만에 ‘민생투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민심 수습 행보에 돌입한다.

대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위해 전국을 도는 이른바 ‘회초리 민생투어’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민주당 비대위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패배감과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 비대위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민생 버스 투어’ 첫 방문지로 광주·전남으로 선택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국회의원 등은 이날 광주를 방

문,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에 이어 광주·전남 선대위 관계자 200여명을 만나 타운을 미팅을 갖고 대선 패배에 대한 냉철한 비판 등을 직접 듣고 향후 민주당 쇄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또 양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대선 패배에 대한 사과도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광주·전남 핵심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진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한다.

16일에는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및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하는 등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

하는 등 전국 민생 버스 투어를 벌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뒤늦은 ‘민생투어’에 지역민들의 시선은 굵지만은 않다. 선거 패배 이후 반성과 쇄신은 커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주류와 비주류, 계파 간 갈등으로 한 달 가량을 질질 끌어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진데다 실망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한 민주당원은 “대선 패배 뒤 비대위를 꾸리는 데도 한 달이 걸린 당이 지역 민심을 어떻게 ‘힐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라운지

이인영 ‘민주당 나아갈 길’ 강연회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이 12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주민센터에서 ‘대선 이후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했다. 포럼 e-KOREA(운영위원장 송경중 광주시의원) 초청으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18대 대선 패배 후 할



김 의원은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할 수 있는 감별기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와 검역 당국은 감별기를 시급히 도입해 어민들의 노력이 헛되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예결위, 상임위 되려면 법개정’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11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원내 현안 대책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와 기재위에 동시에 소속되는 데, 이는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결위가 상임위가 돼서 기재위가 담당하는 일부 기능을 맡는다면 세입·세출·재정·공공기관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실·국들이 예결위 담당 부처로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 쇄신연대, 호남서 워크숍

민주당 비주류 국회의원 모임인 쇄신연대가 오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호남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읍과 강진에서 잇달아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 30여 명에 이르는 쇄신연대 의원들은 민주당의 쇄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배기운, 약용작물 법제화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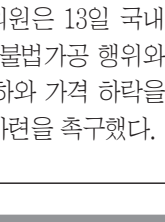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선 약용작물 생산 현황 및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 의원은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중국 등으로부터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용작물 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미역 감별기 도입 촉구

민주통합당 김승남(고흥·보성) 의원은 13일 국내산 청정미역을 중국산과 섞어 파는 불법가공 행위와 관련〈본보 1월11일자 7면〉, 품질 저하와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철수 신당론 ‘모락모락’

송호창 의원 美 방문 회동 “너무 빠른 얘기”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지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최근 미국을 방문, 안 후보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안 후보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안 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밝힌 뒤, 신당창당론에 대해서는 “너무 빠른 얘기”라며 거리를 뒀다.

송 의원은 이어 안 전 후보의 귀국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대선이 끝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어서 이후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 얘기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전 후보와 송 의원의 회동이 단순한 안 부 인사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안 전 후보 측근들이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향후 정국 향배에 대해 논의를 갖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후유증을 겪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안 전 후보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에서는 안 전 후보가 전당대회 직후에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평가와 전당대회 등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 충돌하는 등 정치적 계기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도 대선 패배의 상처가 깊다는 점에서 당장 정치 행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빨라야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후보의 귀국 시기에 따라, 야권의 지형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안 전 후보의 정치 재개 여부도 민주당의 상황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태블릿PC 이용 활성화”

광산·북구의회

광주시 광산구·북구의회가 13일 고가의 태블릿 PC·아이 패드 지급 논란(광주일보 11일자 2면)과 관련, 이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구의원들이 아이 패드를 이용, 현장 민원복을·사진 촬영·구정 홍보 등 의정활동과 공적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도 구의원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철저·한·독일 인의·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신뢰있고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성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 매매가 : 40억원 (감정가 58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녹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동 등 적합)

③ 세하동 서광구역 뒤 자연녹지(그린벨트) 도로 접 입지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당후 결정

염전 급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당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